

외국인 CEO의 엇갈린 평가

한국지엠 vs 르노삼성, 위기극복·리더십 등서 극과극

카허 카셈 사장, 결국 험세 지원 비판...내수 끌찌 굴욕
도미니크 시노라 사장, 신차 도입 성과 및 브랜드 차별화

한국지엠과 르노삼성자동차의 외국인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업계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지엠은 내년 흑자 전환 목표 달성을 위해 경영 정상화 계획을 발표했으며, 이는 28억달러의 신규 투자확보와 함께 임직원 및 주요 주주인 산업은행과 제너럴 모터스(GM), 한국 정부와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통해 수립됐다고 자평했다.

앞서 정부는 GM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 한국 유치, 오는 2023년까지 GM 지분매각 제한, 한국지엠에 대한 산업은행의 비토권 회복 등의 내용을 담은 '한국지엠 관련 협상결과 및 부품업체·지역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하지만 이를 지켜보는 업계 시선은 마냥 좋지않은 않다. 한국지엠이 10년간 국내 사업을 지속할 수밖에 없도록 정부가 안전장치를 마련했다지만, 결국은 8000억원 가량의 공적자금이

투입되면서 험세 낭비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카허 카셈 한국지엠 사장의 리더십 문제도 제기했다. 군산 공장 폐쇄 발표 이후 이렇다 할 행보에 나서기는커녕 본사 뒤에 숨어 있는 듯한 인상까지 줬다는 것.

실제로 한국지엠은 온갖 이슈와 관련해서 배리 앵글 GM 총괄 부사장 겸 해외사업부문 사장이 수시로 방한하며 주요 이해 관계자들을 만나 의견을 피력했을 뿐 카셈 사장은 내수 판매 끌찌, 신차 도입, 노사 관계 등 어느 것 하나 제때 해결하지 못하고 질질 끌었다.

더불어 14일 경영 정상화 간담회 자리에선 비정규직 노조가 난입하면서 카셈 사장이 결국 참석하지 못하고 취소되는 사건까지 발생하고, 얼마 전 있었던 '자동차의 날' 행사에서도 완성차 5사 대표 가운데 먼저 자리를 뜨며 내부는 물론 외부 스킨십에서도 다소 부족한 면모를 보였다.

반면 도미니크 시노라 르노삼성차 사

장은 식사가 끝날 때까지 동종업계 경영진은 물론 기자들과의 접촉도 피하지 않았다. 최근 업계에 떠도는 삼성 브랜드와의 결별설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의견을 내놨다.

시노라 사장은 "아직 삼성과의 파트너십을 중단할 생각은 없다"며 "오는 2020년 7월 계약 종료 이후 결정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고 언급했다. 르노삼성차 관계자도 "바뀌는 건 없다"며 "삼성 상표권 사용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2~3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르노삼성차는 최근 소형 해치백 '클리오'를 출시하면서 삼성차 '태풍의 눈' 엠블럼이 아닌 르노의 다이아몬드 모양 '로장주'를 적용해 관심을 모았다. 이 때문에 르노 브랜드가 독립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많았다.

르노삼성차 측은 클리오에 로장주 엠블럼을 도입한 것을 시작으로 브랜드 차별화에 나선다고 전했다. 유럽 공장에서 생산·수입하는 모델엔 로장주, 국내 생산·판매하는 모델엔 기존 태풍의 눈 로고를 부착한다는 계획이다. 이근우 기자 igw009@

에너지 효율 개선 첫 타자로 '한전' 나선다

(에너지공급자)

산업부, EERS제도 시범사업 도입...에너지공급자 주도 효과적 실행 기대

한전이 에너지효율 개선에 나선다. 정해진 절감목표치에 따라 효율 투자 사업을 벌여 국가 전체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한국전력 공사 등 에너지공급자의 효율향상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를 올해부터 시범사업으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는 에너지공급자에게 에너지 절감목표(GWh)에 비례하는 에너지 절감목표를 부여하고 다양한 효율향상 투자를 통해 목표를 달성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한전은 이번 시범사업에 첫 주자로 나서면서 '전전년도 전력 판매량의 0.15%'라는 목표치를 부여받았다. 이는 746GWh의 전력량으로, 한전은 프리미엄 전동기, LED 조명 등 고효율기기 보급 지원을 직접 수행하거나 에너지 절감전문기업(ESCO)의 투자대행 등을 통해 에너지 절감에 나설 예정이다.

예를 들어 1년간 1대당 2MWh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는 프리미엄 전동기를 90대 보급할 경우 180MWh의 전력량이 해당연도의 절감 실적으로 인정된다.

산업부는 이번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의 도입이 다양한 사회적 편익을 유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업에 나서는 한전(에너지공급자)이 다양한 에너지 소비정보와 전문인력, 전국 조직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비용효과적인 투자가 가능해 에너지 효율 개선을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봐서다.

수요관리 측면에서 에너지 효율 개선은 발전소 확충 부담을 덜고 피크 수요와 온실가스 감축을 가능케 한다는 장점이 있다. 또 에너지소비자는 고효율기기 구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줄



신속한 인명구조

14일 오후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에서 열린 재난대응안전한국 현장 훈련에서 소방대원들이 인명구조 훈련을 하고 있다.

일 수 있다.

이뿐 아니라 발광다이오드(LED), 인버터 등 제조기업 및 에너지서비스 산업(ESCO)의 성장을 촉진하고, 실적검증(M&V:Measurement & Verification) 관련 전문 인력 등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현철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은 "그간의 에너지 효율향상 정책이 기기 제조사·소비자 등에 집중했던 반면,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는 에너지 공급자가 주도한다는 점이 다르다"며 "앞으로 새로운 효율자원(Efficiency Resource)을 지속

발굴하고, 이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예지 기자 kimyj@



LED조명 전자과 적합성 평가 논란에 조명단체, 속수무책...업계 잇단 비판

대응 미숙·후속조치 부족 등 이유

14일 전자과 적합성 평가를 위한 LED조명 제품의 거래정지가 현실화된 가운데 사전에 해당 논란을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조명 단체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조명업계의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할 조명 관련 협동조합의 역할 부재가 부각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업계에 따르면 조달청은 14일 전자과 적합성 인증을 취득하지 않았거나

등록 필증을 제출하지 않은 제품에 대해 모두 거래정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정지 조치가 현실화되 기 힘들 것이라는 예측을 뒤엎고 나라 장터 소품물에 등록된 상당수의 제품이 제외됐다.

이와 관련 업계는 조명공업협동조합(이사장 강영식)과 전기기구LED 산업협동조합(이사장 박현주)의 대응 미숙과 후속 조치 부족 등을 이유로

강한 불만을 노출하고 있다.

조달청은 지난 3월 일부 업체에서 전자과 적합성 평가를 위한 조명 제품을 단속해 달라는 민원을 접수하고, 실태조사와 법안에 대한 유권해석 의뢰작업을 동시에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현황 파악을 위해 전자과 적합성 등록 여부를 업체에 직접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하지만 양 조합은 거래 정지가 실현된 5월까지 회원사들의 인증 여부를 파악하지 못한 것은 물론 정확한 법률 해석 자료를 만들지 못한 채 전자과 적합성 평가를 위한 조명 제품 관련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수동적인 대처로 일관하면서 이번 사안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면에 계속 김승교 기자 kims@

▲HYUNDAI ELECTRIC

Essential for Today
Potential for Tomorrow

High-Quality, High-Performance Industrial Drive HiD500

현대일렉트릭 저압인버터 신제품 HiD500 출시

HiD500 인버터는 다양한 부하 조건에도 안정된 토크 제어와 정밀한 속도를 제공합니다.

다각적인 안전 실험과 검증 절차를 거쳐 산업/기계, 설비 등 모든 산업 환경에 적합하게 적용되는 고품질, 고성능이 입증된 인버터입니다. 또한, 다양한 설계 소프트웨어를 통한 제품 개발 및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체계적인 인버터 생산 프로세스, 지속적인 고객지원을 통해 고객 신뢰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고성능 Capability

· 강력한 모터 제어 성능과 향상된 오토 튜닝 기술 (모터 급가속 안정성 강화 및 기동 토크 성능 향상)



편의성 Convenience

· 그래픽 LCD 오퍼레이터 및 PC Tool 제공
· 펌웨어 업그레이드 기능, 다양한 통신 인터페이스



연계성 Connectivity

· 입력 전원 유연성 확대 및 고조파 저감 장치 (전 모델 DC+- 리액터 내장, EMC C3 Class 기본 제공)



신뢰성 Credibility

· 운전자 안전 보호 기능 강화, 다양한 인증 획득
· 인버터 과열 보호 기능 등 운전자 사고 예방

전압 및 용량
· 3상 208~240V, 0.37~75kW
· 3상 380~500V, 0.55~132kW

